

2012년 12월
밤 관측결과(안)

2012. 11. 13.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밤 산지가격 평년대비 강세지속 전망

산지동향 및 전망

■ 금년산 밤생산량 평년대비 25% 이상 감소한 듯

- 금년 밤 생산량은 평년대비 2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달 예상량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밤 과실비대기에 가뭄과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크기가 작고 섀택, 당도 등도 좋지 않아 품질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주산지별 밤 평년대비 추정 생산량

단위: %

구 분	전체	충청도	경상남도	전라도
증 감 률	-27.3	-25.1	-16.8	-47.4

료: 주산지 표본임가 및 통신원조사치(10월 29일~11월 2일)

■ 산지 저장물량 작년대비 감소한 듯

- 산지 저장물량은 금년도 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산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장물량이 많지 않았던 작년보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저장물량중 농가보유량은 많지 않으며, 산지수집상 및 유통인들의 저장물량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유통상황에 따라 출하량 및 저장물량이 조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 농협 유통비중 작년보다 증가

- 금년도 밤 산지유통은 전체적으로 농협 52.5%, 산림조합 3.3%, 중간수집상 16.3%, 직거래 16.2%, 영농조합이 8.2%로서 농협 및 중간상인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로 농협 유통비중은 작년 46.8%에서 52.5%로 5.7%p 증가한 반면, 직거래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 충청도는 중간수집상 26.0%, 직거래 24.7%, 농협 23.4%, 영농법인 18.2%, 산림조합 5.2%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와의 직거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농협이 89.6%로 농협거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도는 농협이 56.7%, 중간수집상 16.7%, 직거래 16.7% 등으로 농협 이외에 소비자와의 직거래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산지별 밤 유통 비중

단위: %

	농협	산림조합	중간수집상	수출업체	직거래	영농법인	기타
전 체	52.5	3.3	16.3	-	16.2	8.2	3.4
충 청 도	23.4	5.2	26.0	-	24.7	18.2	2.6
경상남도	89.6	3.0	3.0	-	4.5	-	-
전 라 도	56.7	-	16.7	-	16.7	-	10.0

자료: 주산지 표본임가 및 통신원조사치(9월 26일~10월 4일)

■ 내년도 밤나무 식재 보식위주로 진행될 듯

- 주산지의 내년도 밤나무 식재의향은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식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금년 태풍으로 피해를 본 밤나무가 많아 피해목에 대한 보식면적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신규식재는 충청지역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경상남도와 전라도 지역에는 일부 지역에 국한될 전망이다. 대부분 밤나무 식재는 태풍피해목에 대한 보식 및 노령목의 갱신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주산지별 내년도 밤나무 식재 의향

단위: %

구분	충청도	경상남도	전라도
신규	16.4	8.0	3.6
갱신	18.4	20.0	19.3
보식	65.1	72.0	77.1

자료: 주산지 표본임가 및 통신원조사치(10월 29일~11월 2일)

■ 식재품종은 대보, 단택 등 선호

- 내년도 식재선호 품종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품질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보와 단택은 지역적 선호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품종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선호품종은 충청도의 경우 대보, 단택, 대한 등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남도는 단택, 대한, 대보 전라도는 옥광, 대보, 단택 등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산지별 식재선호 품종

단위: %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충 청 도	대보	단택	대한	옥광	석추
경상남도	단택	대한	대보	은기	축과
전 라 도	옥광	대보	단택	이평	유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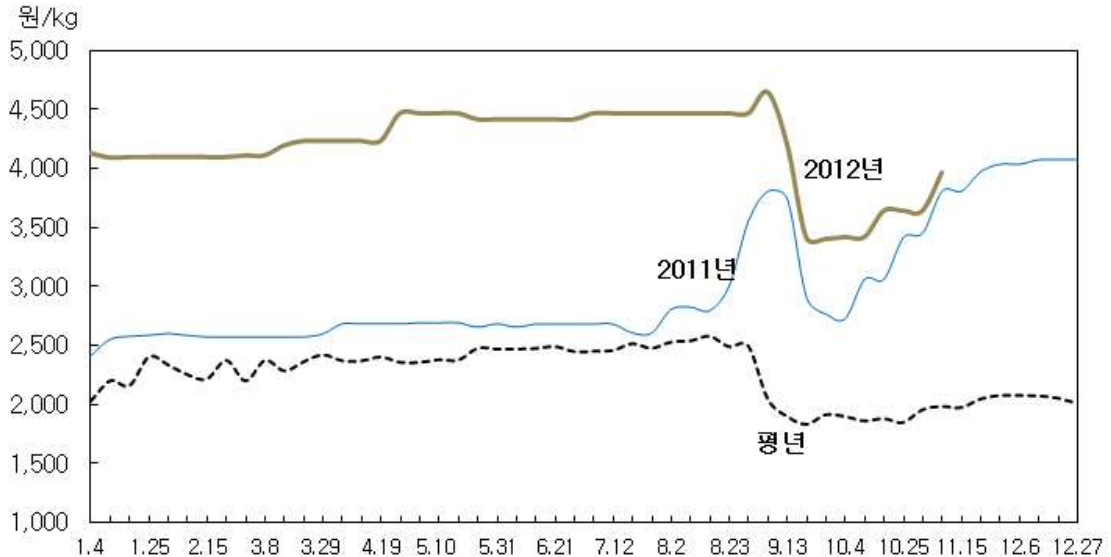
자료: 주산지 표본임가 및 통신원조사치(10월 29일~11월 2일)

가격동향 및 전망

■ 10월 밤 산지가격 평년대비 강세 지속

- 10월 밤 상품 산지가격은 가뭄과 태풍 등이 기상여건 악화로 만생종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9월 하순보다 상승하였으며, 평균가격은 kg당 3,534원으로 작년대비 15%, 평년대비 88% 높은 강세를 나타냈다. 특대 평균 산지가격은 kg당 4,642원으로 작년동기 4,100원에 비해 13% 상승하였다.
- 11월 상순 밤 상품 산지가격은 kg당 3,805으로 10월보다 상승하였으며, 작년대비 1%, 평년대비 91% 높은 수준이다. 특대 산지가격도 kg당 5,042원으로 작년동기 4,715원에 비해 7% 상승하였다.

■ 주별 밤 산지가격 (상품기준)



주 : 평년가격은 '07년 1월~'11년 12월까지의 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 월평균 밤 산지가격 동향(상품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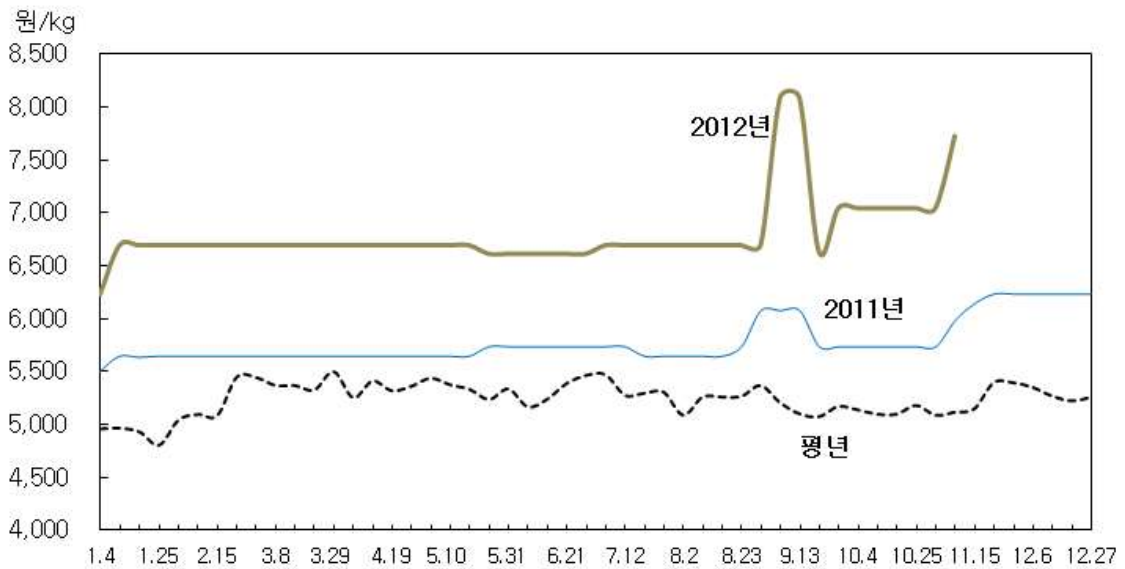
연도	원/kg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4,105	4,097	4,162	4,280	4,454	4,416	4,456	4,466	4,028	3,534	3,805	
2011	2,535	2,588	2,577	2,671	2,688	2,680	2,656	2,863	3,360	3,071	3,765	4,064
평년	2,239	2,246	2,355	2,360	2,419	2,475	2,482	2,536	1,948	1,881	1,996	2,053

주 : 11월 가격은 11월 9일 까지, 평년가격은 '07년 1월~'11년 12월까지의 주별 평균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을 의미하며, 산지가격은 공주, 광양, 부여, 하동, 순창, 순천지역 등의 평균 가격임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 10월 밤 소비지가격 평년대비 강세

- 10월 밤 상품 평균 소비지가격은 kg당 7,040원으로 작년대비 23%, 평년대비 38% 높은 강세가 지속되었다.
- 11월 상순 밤 상품 소비지가격도 kg당 7,380원으로 10월보다 상승하였으며, 작년대비 23%, 평년대비 41% 높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 주별 밤 소비지가격 (상품기준)



주 : 평년가격은 '07년 1월~'11년 12월까지의 주별 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임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 월평균 밤 소비지가격 동향(상품기준)

		원/kg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2	6,575	6,690	6,690	6,690	6,670	6,610	6,674	6,690	7,304	7,040	7,380		
2011	5,603	5,640	5,640	5,640	5,663	5,730	5,694	5,663	5,935	5,730	6,020	6,230	
평년	4,901	5,341	5,428	5,424	5,332	5,342	5,307	5,273	5,100	5,112	5,242	5,282	

주 : 11월 가격은 11월 9일까지, 평년가격은 '07년 1월~'11년 12월까지의 월별 평균가격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을, 소비지가격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의 평균 가격임
 자료 : 산림조합중앙회

■ 밤 산지가격 평년대비 강세 전망

- 밤 가격은 10월 상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11월 중·하순 이후에는 밤 소비계절이 도래하고 밤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급물량 부족, 저장 밤의 유통 등 가격상승 요인이 잠재해 있어 평년보다 높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 동향 및 전망

■ 밤 수출 평년보다 감소 전망

- 2012년 9월까지 밤 총 수출량은 4,456톤, 금액으로는 1,376만 달러로서 수출량은 작년대비 35% 증가하였으나, 평년대비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생밤 3,917톤, 깎밤 231톤, 냉동밤 23톤, 조제밤 285톤이 수출되었으며 생밤은 작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평년대비 15% 감소하였으며, 깎밤은 작년대비 14% 증가한 반면, 평년대비 24% 감소하였고, 조제밤은 작년대비 8% 증가한 반면, 평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월 중순이후 밤 수출은 일본의 재고소진, 수출선의 다변화 등 수출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년산 밤의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산지가격 상승으로 평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밤 수출 동향

단위: 톤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2	생 밤	1	38	5	0	1	1	1	2	3,869	(5,824)		3,917	
	깎 밤	-	-	0	-	-	-	-	0	231	(246)		231	
	조제밤	34	17	12	33	30	49	18	33	59	(25)		285	
'11	생 밤	16	18	1	14	2	1	3	32	2,740	5,887	583	127	9,423
	깎 밤	0	0	1	0	-	-	0	0	201	503	61	-	766
	조제밤	81	46	22	10	31	1	26	33	13	59	92	76	491
평년	생 밤	37	13	1	17	8	6	2	36	4,477	5,013	816	228	10,655
	깎 밤	1	0	0	-	0	-	0	0	304	502	153	5	965
	조제밤	40	35	37	52	34	49	36	49	48	61	60	72	571

주: 10월은 잠정 추계치로 집계에서는 제외. 평년은 2007년 1월~2011년 12월까지의 월별 값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며,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밤 수입 평년보다 증가할 듯

- 2012년 9월까지 수입량은 5,256톤, 금액으로는 1,386만 달러로서 수입량은 작년대비 14%, 평년대비 15% 증가하였다.
- 품목별로는 생밤 1,341톤, 냉동밤 2,860톤, 조제밤 1,055톤이 수입되었다. 생밤은 작년대비 12%, 평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냉동밤은 작년대비 33%, 평년대비 39% 증가한 반면, 조제밤은 작년대비 16%, 평년대비 31% 감소하였다.
- 11월 중순이후 밤 수입은 중국의 생산여건에 영향을 받겠지만 국내산 밤의 가격상승으로 수입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 평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밤 수입 동향

단위: 톤

년 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12	생 밤	164	179	236	186	159	105	145	40	127	(272)			1,341
	냉동밤	467	445	528	412	273	229	204	105	197	(286)			2,860
	조제밤	117	135	102	88	120	141	147	115	91	(149)			1,055
'11	생 밤	134	106	159	168	164	156	43	103	166	262	272	321	2,054
	냉동밤	359	179	187	330	262	239	185	115	297	86	236	465	2,940
	조제밤	170	229	164	76	143	160	80	109	123	86	109	102	1,552
평 년	생 밤	173	124	137	169	130	68	67	43	86	184	154	163	1,499
	냉동밤	374	169	220	269	234	213	222	155	209	281	321	316	2,983
	조제밤	192	181	214	182	191	136	199	120	109	127	125	111	1,887

주: 10월은 잠정 추계치로 합계에서는 제외. 평년은 2007년 1월~2011년 12월까지의 월별 값 중 최대, 최소를 뺀 평균이며,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였음.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관세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요약 및 종합 전망

■ 식재 보식위주, 품종은 대보, 단택 선호

• 주산지의 내년도 밤나무 식재는 태풍피해목에 대한 보식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식재의향 품종은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대보 단택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밤 산지가격 평년대비 강세 전망

• 11월 중순 이후 밤 산지가격은 본격적인 소비시작의 도래로 수요요인은 있으나 산지의 생산량 및 출하량 감소, 저장 밤의 유통 등 공급요인의 변화로 인해 평년대비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밤 유통 농협 비중 증가, 직거래 감소

• 금년도 밤 유통은 지역적 차이는 있으나 생산량 감소 및 농협의 경제사업 확대로 농협 거래비중이 증가한 반면, 소비자 직거래 비중은 작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밤 수출은 평년대비 감소, 수입은 증가 전망

• 밤 수출은 일본의 재고소진, 수출선의 다변화 등 수출수요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가격 상승으로 평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며, 수입은 평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단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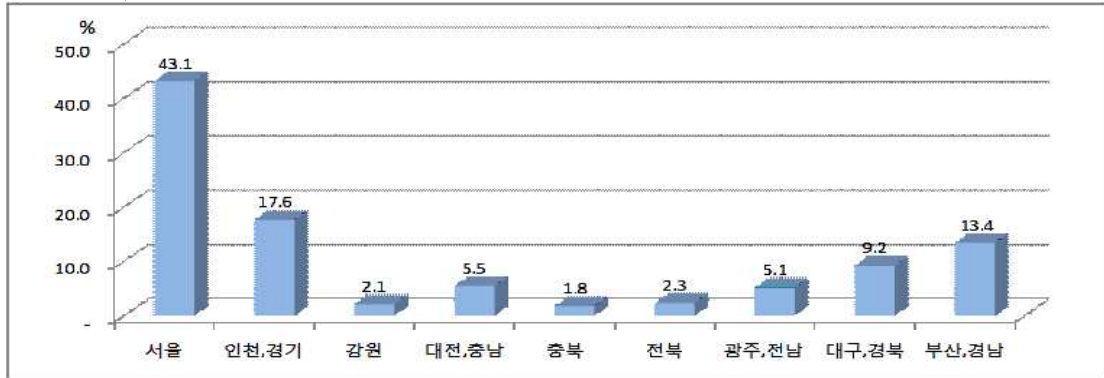
밤 소비자 조사 결과

I. 조사개요

- 조사대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패널 568명
- 조사기간: 2012. 10. 30~31
- 조사대상의 평균 특성:

구 분		비율(%)	구 분		비율(%)
가 족 수	4명	50.5	학 력	대 졸	47.7
연 령	40대	45.6	월 소득	300~400백만원	29.8

- 표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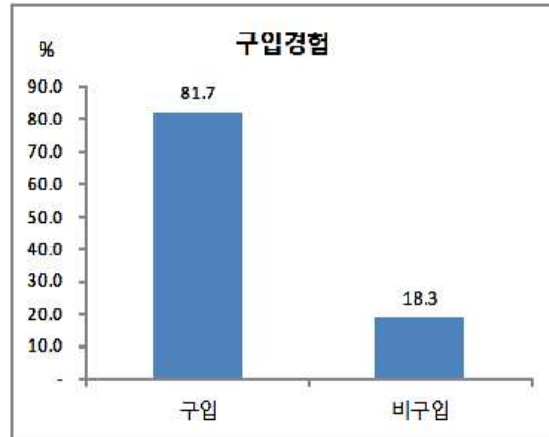


II. 조사결과

■ 밤 구매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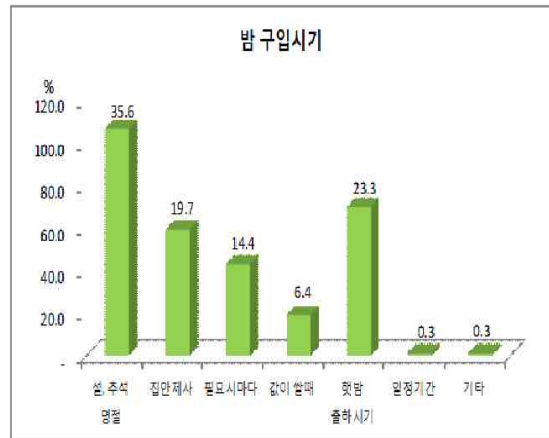
○ 구매 경험

- 최근 1년간 밤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 응답가구의 81.7%인 464명이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구입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밤을 구입하지 않았던 이유로는 '가죽이나 찢히에게서 얻어 와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입 시기 및 장소

- 최근 1년간 주로 밤을 구입한 시기는 '설, 추석 등 명절' 이라고 답한 가구가 전체가구의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햇밤 출하시기가 23.3%로 다음 순위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주로 밤을 구입한 장소는 '재래시장' 이라고 답한 가구가 전체가구의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형할인점'이 33.1%로 나타나 일반농산물에 비해 재래시장 구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입시 선호형태

-밤 구입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신선도와 외형, 가격 등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선하고 품질 좋은 밤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1회 평균 밤 구입량은 '500g~1kg'이 51.3%로 소량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밤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였냐는 질문에 '분기에 1회'가 60.3%로 나타나 구입 횟수는 잦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선호하는 포장형태는 '무게를 달아서 파는 형태'가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망, 비닐 등 소포장 형태'도 45.1%로 나타남.

-선호하는 크기로는 '대(1개당 무게 16g 이상, 직경 33~37mm)'가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구입시 선호되는 지역밤은 '충남지역 밤'이며 27.2%는 지역에 대해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밤 소비행태

○ 소비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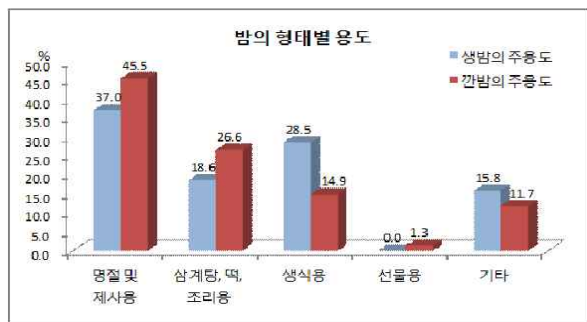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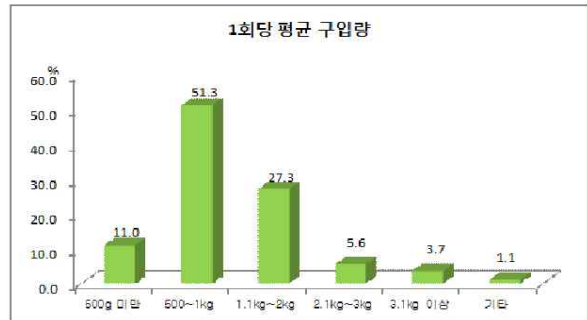
-구입밤의 형태는 '생밤'이 90.3%로 가장 많고 깎밤이 8.2% 차지하며, 생밤의 주 용도는 명절 및 제사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3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식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28.5%, 조리용으로 18.6%로 나타남.

-밤의 영양학적 기능성 중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기능성은 '탄수화물, 단백질, 기타지방,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발육 및 성장에 좋다'로 40.7%를 차지하였으며 기능성에 대해 '알지못함'은 11.7%로 나타나 밤의 기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됨.

-밤의 최근 1년간 밤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로는 '맛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나 맛과 품질에 따라 소비량이 달라지고 있으며, 농가단위에서의 밤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밤 구입시 우선 고려사항

우선순위	1	2	3	4	5	6	7	8	합계
브랜드	2.9	5.6	4.9	8.6	14.2	24.0	22.7	17.1	100.0
신선도	35.4	20.6	16.2	13.9	10.6	2.2	0.9	0.2	100.0
포장형태	0.7	3.7	5.9	8.4	17.8	19.2	19.0	25.3	100.0
외형	20.1	29.6	18.8	14.6	7.7	4.2	2.9	2.0	100.0
생산지역	10.7	14.3	9.3	10.0	14.5	15.4	15.0	10.7	100.0
가격	8.3	13.4	23.2	21.2	12.5	9.4	7.8	4.2	100.0
원산지	24.8	14.5	20.1	18.3	9.6	6.7	4.9	0.9	100.0
품종	0.7	2.4	5.0	4.5	13.7	20.5	26.9	26.4	100.0



■ 밤의 기능성 및 소비(구매)증가원인

밤의 영양학적 기능성	비율 (%)	증가 이유	비율 (%)
인체발육 및 성장에 도움	40.7	가족건강을 위해서	39.4
피부미용, 감기예방	33.9	맛이 좋아서	51.1
다이어트 식품	12.8	가격이 싸서	1.1
알지못함	11.7	기타	8.5
기타	0.9		
합계	100.0	합계	100.0

■ 요약

- 날씨의 변화가 잦은 가운데 기온의 변동 폭이 크겠음.

■ 기압계 전망

- 11월 하순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날씨의 변화가 잦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12월 상순에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12월 중순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하겠으며, 추운 날씨가 자주 나타나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 순별 예보

- 11월 하순: 기온은 평년(2~10℃)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도 평년(9~23mm)과 비슷하겠음.
- 12월 상순: 기온은 평년(-1~7℃)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도 평년(7~19mm)과 비슷하겠음.
- 12월 중순: 기온은 평년(-3~5℃)보다 낮겠으며, 강수량도 평년(4~11mm)보다 적겠음.

■ 순별 기온 및 강수량¹⁾

구 분		전 국	서 울	강 령	청주	대 구	진 주	광 주	부 산	체 주
11월하순	최고기온	11.1	8.9	11.5	10.1	12.1	11.4	12.3	14.2	14.1
	최저기온	0.3	0.8	3.2	-0.5	1.9	1.2	2.3	5.7	8.0
	강 수 량	15.4	14.1	21.7	14.8	9.4	17.8	17.5	17.9	22.4
12월상순	최고기온	8.7	6.1	9.6	7.4	9.8	8.9	9.8	12.1	12.4
	최저기온	-1.9	-1.6	1.1	-2.9	-0.3	-0.8	0.4	3.5	6.3
	강 수 량	11.4	9.4	14.3	12.7	7.1	15.6	15.5	9.5	17.5
12월중순	최고기온	6.6	3.9	7.5	5.2	7.8	6.8	7.6	10.0	10.6
	최저기온	-3.3	-3.3	-0.7	-4.3	-1.6	-2.2	-1.1	1.7	5.2
	강 수 량	6.1	5.6	8.1	5.1	3.6	7.4	8.7	7.9	17.0

단위: ℃, mm

주: 1) 1981~2010년의 평균치임.

임업관측 4월호 예고(예정일자: 2013. 3. 15.)

- 품목: 밤
- 내용: 산지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수출입동향

이 『임업관측월보』는 인터넷과 임업전문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임업관측월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내의 우측【바로가기】메뉴바의【질의응답】을 이용하여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rei.re.kr> ☎ 02) 3299-4325 FAX: 02) 960-0165

<http://www.forest.go.kr> ☎ 042) 481-4206 FAX: 042)481-4198

담당자: 장철수, 송성환

이 「임업관측」은 산림청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연구부에서 재배자의 재배 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임업 및 통계 전문가들에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전망 결과는 앞으로의 기상 및 수급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